2013년02월02일년 PSAT 언어논리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38문제】 과목 구분 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②	③	⑤	④	③	③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②	②	③	④	②	①	④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②	①	③	⑤	③	①	④	④	①	⑤
	31	32	33	34	35	36	37	38		
	③	⑤	⑤	③	②	①	④	⑤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오답・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CBT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38문제)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고종은 과거 청에서 근무한 바 있고 수년 동안 외부(외교부)대신을 역임한 박제순을 1902년 8월 주청공사로 임명하였다. 이는 청의 대외정책을 면밀히 파악하고 청과의 제휴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두만강 건너에 위치한 간도는 한청 제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청은 정치적 위세를 배경으로 간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 하였다. 역시 간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던 한국 정부도 간도의 영토 편입을 추진하였다. 1901년 3월 한국정부는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를 함경북도 회령(會寧)에 설치하여 간도 거주 한국인에 대한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그 해 10월 변계경무소의 경무관 이경순 등이 간도로 가서 한국인에 대한 관리를 시도하자 주한청국공사는 한국의 외부에 이를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청국공사는 두만강 연안에서의 양국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약관을 한청통상조약에 부가하자고 한국정부에 제의했다. 그러나 한국 경무관들은 1903년 6월 간도 거주 한국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향약을 실시했다. 청국정부는 이를 방치할 경우 간도주민이 한국에 복속될 것을 우려하여 국경에 대한 월경을 상호 금지하게 하자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두만강이 한청 양국의 국경이라는 청의 인식 하에 나온 조치였다. 이에 대해 내부대신 김규홍은 명백히 한국영토인 간도에서 토지를 측량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간도 거주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을 간도에 파견할 것을 의정부에 건의하여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게 했다. 청은 주청공사 박제순을 불러 이범윤이 임의로 향약을 설치하고 주민을 편제하여 징세한다고 항의하면서 한청통상조약에 의거하여 이범윤의 소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제순은 간도는 본래 한국과 청의 경계지역으로 수십년 동안 한국인 수만 호가 이주하였는데 청의 관리가 학대하자 간도 거주민이 한국정부에 호소했고 이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범윤을 파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범윤은 간도를 함경북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 영유권을 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청은 무력을 동원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한국군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 진입했고, 청군과 교전 끝에 이들을 격파했다.

<보 기>

ㄱ. 이범윤은 간도를 함경북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하였다.

ㄴ. 간도에서 세금을 징수하자는 내부대신 김규홍의 건의에 따라 한국 경무관들은 간도에서 세금을 징수했다.

ㄷ. 박제순은 이범윤을 소환하는 것에 대해 한청통상조약에 의거하여 반대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 다음 글의 ㉠~㉢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순서대로 ㉠, ㉡, ㉢)

윤리라는 말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쓰이는 맥락에 따라 윤리라는 말의 의미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윤리(ethics)'라는 말은 관습 또는 특유의 습관이라는 의미인 그리스어 'ethos'에서 유래했다. '도덕(morals)'의 어원인 라틴어 'mores' 역시 관습을 의미한다. 관습과 윤리의 혼동은 우리가 한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사고방식을 가리켜 ㉠'윤리'라고 말할 때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때 '윤리'는 의료 윤리, 법조 윤리처럼 특정 직업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규약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슈바이처의 윤리,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윤리처럼 한 개인이나 특정 시대, 특정 사회의 도덕관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윤리라는 말은 윤리 또는 도덕과 관련된 주제, 경험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주제, 경험은 법, 종교, 예술, 과학, 경제, 스포츠 등과 같은 인간의 독특한 관심 분야이다. 예를 들어 "인간복제는 윤리적 논쟁거리이다."라고 말할 때의 ㉡윤리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때 '윤리적(ethical)'이라는 표현은 '도덕적(moral)'이라는 표현과 의미상 차이가 없다. 그와 반대되는 표현은 '도덕과 관계없는(nonmoral)'이 된다.

윤리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칭찬할 만하고 도덕적으로 알맞은 결정이나 행위를 가리킬 때 쓰인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 워싱턴의 행동은 윤리적이야."라고 말할 때의 ㉢윤리는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는 '비윤리적(unethical)', '비도덕적(immoral)'이라는 표현과 반대된다.

<보 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라."라는 명제는 우선 도덕적 사고분야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A)'윤리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실제로 돕는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므로 (B)'윤리적'이다. 한편, 이 명제는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어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C)'윤리적'이다.

① A, B, C

② A, C, B

③ B, A, C

④ C, A, B

⑤ C, B, A

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생성예술은 사이버네틱스와 시스템이론을 이용한 현대예술 형식이다. 생성예술은 본질적으로 '작품'이란 완성된 최종적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예술 관념에 저항한다. 생성예술에서 작가는 생물 발생과 진화의 생성 시스템에 내재된 창발(創發), 진화, 자기 조직화의 개념을 창작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생성예술은 인공적이거나 자연적인 시스템을 사용한다. 때문에 생성예술의 작가는 직접 작품을 완성하는 것보다 과정으로서의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계에 더 큰 관심을 둔다. 일단 작가가 생성 시스템을 설계하면, 그 시스템의 작동에 따라 작품은 스스로 만들어진다. 생성예술에서는 작품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자체가 창작활동의 핵심적 요소이다. 생성예술의 작가는 작품이 창작되는 전 과정을 모두 예상하기는 힘들며, 생성예술 작품은 작가의 성향이나 의도가 아닌 창작과정에 주어지는 조건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생성예술에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작가가 설계한 생성 시스템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작동하면 스스로 작품요소가 선택되고, 선택된 작품요소들이 혼성·개선되면서 창발적으로 새로운 작품요소를 만들어낸다. 이런 과정은 흡사 생명체가 발생하고 진화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생성예술은 예상치 못하게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작품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과정 자체는 무작위적인 우연의 연속이다. 이처럼 창작과정에서 무작위적 우연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생성예술에서 작가 개인의 미학적 의도를 해석해낼 수 없다.

① 생성예술에서는 무작위적 우연이 개입되어 작품을 만들어간다.

② 생성예술에서는 완성된 최종 결과물이 곧 작가의 창작의도이다.

③ 생성예술에서는 작품의 완성보다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창작활동의 핵심으로 이해된다.

④ 생성예술에서 작품요소가 선택되고 혼성 · 개선되는 과정 중간에 작가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⑤ 생성예술에서 작가가 시스템을 설계하면, 그 시스템은 생명체가 발생하고 진화하는 것처럼 스스로 작품을 조직해 나간다.

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조선시대 농사는 크게 논농사와 밭농사로 나누어졌다. 논농사의 경우 기존의 방식 대신 이앙법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제초를 할 때 드는 노동력이 크게 절약되었으며 곡식의 종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벼의 수확을 끝낸 논에 보리를 심어 한차례 더 수확할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에는 농업이 발전된 전라·경상·충청도만이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모두 이를 본받아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농사법은 이앙을 해야 할 시기에 가뭄이 들면 이앙을 할 수 없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수원(水源)이 근처에 있어 물을 댈 수 있는 곳은 이앙을 하게 했으나, 높고 건조한 곳은 물을 충분히 댈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여 이앙하도록 지도했다. 만약 물을 댈 수 없는 곳인데 비가 올 것이라는 요행을 바라고 이앙하려고 하다가 농사를 망칠 경우에는 흉년 시 농민들에게 주던 혜택인 세금 면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게 하였다.

밭농사에서의 전통적인 농사법은 농종법(壟種法)이었다. 이는 밭두둑 위에 종자를 심는 것이었는데, 햇빛에 노출되어 습기가 쉽게 말라 가뭄이 들면 종자가 발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조선후기에 들어와 농민들은 새로운 농사법을 다투어 채용하였다. 견종법(畎種法)이라 불린 이 농법은 밭두둑에 일정하게 고랑을 내고 여기에 종자를 심는 것이었다. 고랑에 종자를 심었으므로 흙이 우묵하게 그늘이 져서 습기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종자가 싹틀 확률이 높은 것이 첫 번째 장점이었다. 또한 고랑을 따라 곡식이 자랐기 때문에, 곡식과 잡초가 구획되어 잡초를 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 자연히 잡초 제거에 드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었다. 세 번째 장점은 고랑에만 씨를 심었으므로 농종법에 비해 종자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네 번째로, 종자를 심는 고랑에만 거름을 주면 되므로 거름을 절약할 수 있고 모든 뿌리가 거름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자연히 기존 방식에 비해 수확량이 증대되었다. 마지막으로 곡물의 뿌리가 깊이 내려 바람과 가뭄에 잘 견디는 것도 이 농법의 장점이었다.

① 정부는 가뭄의 위험을 이유로 이앙법의 보급을 최대한 저지하였다.

② 견종법은 농종법에 비해 수확량은 많았지만 보다 많은 거름을 필요로 하였다.

③ 이앙법과 견종법 모두 기존의 방식에 비해 제초에 드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④ 농종법으로 농사를 지을 때에는 밭두둑이 필요하였지만, 견종법은 밭두둑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⑤ 이앙법은 종자를 절약할 수 있었지만, 견종법은 기존의 방식에 비해 종자의 소모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5.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기(基)와 단(壇)의 합성어인 기단은 건물이나 탑 등의 토대가 되도록 쌓아올린 받침인 동시에 외부로 노출되는 시설로서 건물 하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기단은 건물의 외관을 만들어내는 의장적 요소로서의 기능도 지닌다. 기단은 건물의 하부에 곧은 직선을 형성함으로써 건물이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한다. 또한 기단은 그 높이와 규모, 마감 방법 등에 차이를 두어 건물의 가치와 위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넓은 의미에서 기단은 시설을 포함하는 건물 하부 구조의 총칭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기단은 지붕 처마선 안쪽에 위치한 것으로 한정된다. 이 좁은 의미의 기단은 한국 전통 건축의 주요한 구성 요소로 다른 나라의 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 까닭은 무엇일까?

고온 다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있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건물 바닥이 지면보다 낮은 선사시대의 움집은 매우 불리한 형태였다. 그래서 구조와 난방 기술의 발달에 따라 건물의 바닥을 지면 위에 둔 지상 건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구조 기술의 발달로 수직 기둥과 벽이 출현하고 지붕을 지면에서 떨어뜨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온돌의 발달로 난방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이로써 움집은 급격히 지상 건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청동기 시대 전반에 걸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지상 건축으로 발달하면서 위생적인 문제의 해결과 건물의 보호를 위해 기단이 도입되어 일반 주거 시설에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기단의 끝 선을 처마선 안쪽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지붕의 낙수는 기단 밖으로 떨어지게 되며 낙수가 지면으로부터 건물로 튀는 것을 지면보다 높은 기단이 막아준다. 집중호우가 있을 때도 기단은 물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기단 윗면이 항상 마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기단의 기능은 목조 건물이 물이나 습기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건물의 수명을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기단의 도입으로 인해 건물이 지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거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비롯해 해충의 침입도 어느 정도 막아주었다. 이처럼 기단은 건물 환경을 위생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단이 지니는 이러한 위생적 기능은 바닥 전체에 온돌을 들이는 난방 시설의 발달과 함께 한국 전통 건축에서 기단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① 기단의 도입에는 청동기 시대 전반에 걸친 기후 환경의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② 기단의 높이나 넓이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보다는 그 건물의 가치와 위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③ 한국 전통 건축에서 기단은 수직 기둥과 벽의 출현 등 가옥 구조 기술의 발달을 가져온 요소이다.

④ 좁은 의미의 기단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 해충 및 습기 방지와 온돌 설치를 위해 도입되었다.

⑤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 지붕보다 좁고 지면보다 높게 설치된 기단은 목조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6.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감염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열(熱)을 내는 것이다. 우리는 발열을 흔한 '질병의 증상'이라고만 생각한다. 아무런 기능도 없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수동적인 현상처럼 여긴다. 그러나 우리의 체온은 유전적으로 조절되는 것이며 아무렇게나 변하지 않는다. 병원체 중에는 우리의 몸보다 열에 더 예민한 것들도 있다. 체온을 높이면 그런 병원체들은 우리보다 먼저 죽게 되므로 발열 증상은 우리 몸이 병원체를 죽이기 위한 능동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반응은 면역 체계를 가동시키는 것이다. 백혈구를 비롯한 우리의 세포들은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를 능동적으로 찾아내어 죽인다. 우리 몸은 침입한 병원체에 대항하는 항체를 형성하여 일단 치유된 뒤에는 다시 감염될 위험이 적어진다. 인플루엔자나 보통 감기 따위의 질병에 대한 우리의 저항력은 완전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다시 그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한 번의 감염으로 자극을 받아 생긴 항체가 평생 동안 그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준다. 바로 이것이 예방접종의 원리이다. 죽은 병원체를 접종함으로써 질병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항체 생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일부 영리한 병원체들은 인간의 면역성에 굴복하지 않는다. 어떤 병원체는 우리의 항체가 인식하는 병원체의 분자구조, 즉 항원을 바꾸어 우리가 그 병원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가령 인플루엔자는 항원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전에 인플루엔자에 걸렸던 사람이라도 새로이 나타난 다른 균종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느린 방어 반응은 자연선택에 의한 반응이다. 어떤 질병이든지 남들보다 유전적으로 저항력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어떤 전염병이 한 집단에서 유행할 때 그 특정 병원체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생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특정 병원체에 자주 노출되었던 인구 집단에는 그 병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자연선택의 예로 아프리카 흑인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겸상(鎌狀) 적혈구 유전자를 들 수 있다. 겸상 적혈구 유전자는 적혈구의 모양을 정상적인 도넛 모양에서 낫 모양으로 바꾸어서 빈혈을 일으키므로 생존에 불리함을 주지만,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저항력을 가지게 한다.

① 발열 증상은 수동적인 현상이지만 감염병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

② 예방접종은 질병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항체 생성을 자극한다.

③ 겸상 적혈구 유전자는 적혈구 모양을 도넛 모양으로 변화시켜 말라리아로부터 저항성을 가지게 한다.

④ 병원체의 항원이 바뀌면 이전에 형성된 항체가 존재하는 사람도 그 병원체가 일으키는 병에 걸릴 수 있다.

⑤ 어떤 질병이 유행한 적이 없는 집단에서는 그 질병에 저항력을 주는 유전자가 보존되는 방향으로 자연선택이 이루어졌다.

7.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전통적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축적된 마케팅의 개념과 방법론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적 마케팅은 대체로 기능상의 특징과 편익에 초점을 맞춘다. 전통적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이 상품의 기능적 특징을 평가하여 최고의 효용을 가져다 줄 상품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기능적 효용으로 설명되지 않는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지 효과'나 '브랜드 효과'로 설명하며, 이는 전체 소비 행위의 비중에서 미미할 것으로 간주한다. 전통적 마케터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마케팅을 할 때, 분석적이며 계량적인 도구를 사용한다. 구체적인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소비자들의 평가를 수치화하여 분석 모형에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하지만 소비생활을 오랜 기간 지속해 온 고객들은 이제 제품의 편익과 품질을 반영한 기능적 특징에 더불어 '그 이외의 것'을 요구한다. 이 때 소비자들은 자신의 감각에 호소하고 가슴에 와 닿으며 자신의 정신을 자극하는 상품과 마케팅을 원한다. 다시 말해 소위 '체험 마케팅'을 원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체험 마케팅은 전통적인 마케팅과 달리 고객 체험에 중점을 둔다. 체험은 감각, 마음 그리고 정신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기업과 브랜드로 연결시킨다. 이를테면 전통적 마케터들이 생각하는 욕실 상품의 마케팅 범주는 샴푸, 면도크림, 드라이기 등의 용품이 갖는 기능적 특징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체험 마케터들은 이와 더불어 좀 더 폭넓게 '욕실에서의 몸치장'을 생각하여 어떤 제품이 이 소비상황에 맞는지,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체험을 더 승화할 수 있는지 등을 반영한 상품들의 마케팅 범주까지 고려한다. 이제 소비자들은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창조적으로 도전받길 원한다. 이런 소비자들에 대응하는 체험 마케팅의 수단은 수많은 소비 패턴에 대해 맞춤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소비자들에게 표준화된 동일한 형식을 제공하기보다는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새로운 형식을 만드는 것이다. 체험 마케팅의 전략 수립 과정도 하나의 방법론적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어떤 방법과 도구들은 아주 분석적이거나 계량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소비자들의 평가 정보를 얻기 위한 장소 또한 인위적인 인터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 될 수도 있다.

① 체험 마케팅의 수단과 전략 수립 과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② 체험 마케터는 전통적 마케터보다 상품의 마케팅 범주를 더 넓게 설정한다.

③ 체험 마케팅의 발달은 오늘날의 소비자들이 상품의 기능적 효용보다는 감성적 측면을 더 중시함을 반영한다.

④ 전통적 마케터는 계량화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능적 효용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⑤ 전통적 마케터들은 소비자의 브랜드나 이미지에 의한 소비 비중이 기능적 효용에 의한 소비 비중에 비해 작은 것으로 간주한다.

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선함과 같은 도덕가치는 나무나 바위처럼 존재하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그들에 따르면 나무와 바위는 사람이 없더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선함과 같은 도덕가치는 항상 사람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한다.

"도덕가치는 항상 사람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 주장 중 하나로 이해된다. 우선 이를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행위가 꼭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까? 당신이 세상에 남겨진 마지막 사람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사과나무를 심은 당신의 행위는 그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다. 심지어 당신도 사과나무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를 심는 행위는 세상의 그 어느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이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으로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면, 그것을 판단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당신의 사과나무 식수행위를 다시 생각해 보자. 당신마저 죽는다면, 이 세상에 당신의 행위에 대해 판단할 어떤 사람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당신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이다.

①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는 잘못 판단될 수 없다.

②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는 선한 사람의 존재를 전제한다.

③ 어떤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그것을 판단할 사람이 없을 수 있다.

④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면, 이로 인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⑤ 어떤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9.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큐잉 이론은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기다리는 대기자와 대기 시간과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이론은 서비스를 행하는 서버와 서비스를 받는 객체를 설정하고, 서버의 작업률을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의 운용 상태를 파악하는 데 적용된다. 개별 서버의 작업률은 작업이 가능한 주어진 시간 중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행하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큐잉 이론에서 서버의 객체 당 서비스 시간과 서버에 도착하는 객체 간의 시간 간격은 작업률 분석에 필요한 요소들이다.

예를 들어 상점에 계산대가 하나 있고 여기에서 한 명의 손님을 서비스하는 데 정확히 1분이 소요되며, 정확히 2분 간격으로 손님이 계산대에 도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런 경우라면 계산대의 직원은 시간당 30분을 일하게 되므로 서버의 작업률이 50%임을 알 수 있다. 만일 도착 간격이 줄거나, 서비스 시간이 길어지면 서버의 작업률은 점차 높아지는데, 도착 간격이 서비스 시간보다 짧아지면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줄에서 기다리는 손님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계산대를 하나 늘려서 손님의 대기 시간을 줄여야 한다.

도착 간격이나 서비스 시간 등 시스템의 운용 상태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일정한 값을 가지면, 시스템은 일정한 상태로 운용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요소들은 확정적인 값이 아니라 대부분 불규칙하게 변하는 확률적인 값의 형태를 취한다. 이 때 큐잉 이론에서는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는데, 서비스 시간과 객체의 도착 간격을 실제 상황과 유사하도록 시간에 대한 확률 분포로 나타내며, 우선 그 평균값이 시스템 분석에 사용된다. 이 경우 산출된 서버의 작업률 역시 시간에 대한 평균값이 되므로 특정 시점의 작업률은 어떤 범위에 속한 하나의 값일 뿐이다. 따라서 작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하는 확률 분포의 범위 내에서 어떤 값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작업률의 값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시간이 아주 짧아지거나 도착 간격이 아주 커지는 경우, 산출되는 작업률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보 기>

ㄱ. 처리시간이 더 빠른 계산대로 교체하는 것은 서버의 작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ㄴ. 계산대를 하나 늘리는 것은 서비스 시간을 줄여 서버의 작업률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ㄷ. 계산대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경우 그 계산대의 작업률은 100%를 초과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0. 다음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전제는?

> A원리에 따르면,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가 현재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주가 생성되는 초기에 장차 인간이라는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물리법칙과 자연의 상수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A원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만약 물리법칙이 지금과 달랐다면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 결과 물리법칙이 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A원리가 옳을 경우, 물리학이 현재와 같은 설명력과 예측력을 유지한다면 물리법칙은 단순히 국소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일 것이다. 그런데 물리법칙이 보편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보편적이지도 않다. 그러므로 <u>A원리는 옳지 않다.</u>

① 보편적인 물리법칙은 설명력과 예측력을 갖는다.

②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항상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③ 물리학이 현재와 같은 설명력과 예측력을 유지한다.

④ 물리학이 현재 가지는 설명력과 예측력은 제한적이다.

⑤ 물리법칙과 자연의 상수가 지금과 같다면 우주에는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

11. 신입 직원 갑, 을, 병, 정, 무가 기획과, 인력과, 총무과 가운데 어느 한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다음 진술들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 갑이 총무과에 배치되면, 을은 기획과에 배치된다.
> - 을이 기획과에 배치되면, 정은 인력과에 배치되지 않는다.
> - 병이 총무과에 배치되면, 무는 기획과에 배치되지 않는다.
> - 병이 총무과에 배치되지 않으면, 정은 인력과에 배치된다.
> - 정이 인력과에 배치되지 않으면, 무는 기획과에 배치된다.

① 갑은 총무과에 배치되지 않는다.

② 을은 총무과에 배치된다.

③ 병은 기획과에 배치된다.

④ 정은 인력과에 배치되지 않는다.

⑤ 무는 총무과에 배치된다.

12. 다음 글의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사에서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중에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반면에 광주 지사에 근무하는 A사 직원들 중 약 3분의 1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이상의 정보로부터 우리는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선 광주 지사에 근무하는 A사 직원이면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 가운데 아무나 한 명을 골라 '갑'이라고 해보자. 광주 지사에 근무하는 A사 직원 중 약 3분의 1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갑은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님이 분명하다. (㉡) 결국 갑과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갑의 사례에 의해 (㉠)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① ㉠:광주 지사에는 서비스 분야 담당이 아닌 A사 직원도 있다㉡:갑이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A사의 서비스 분야 직원 중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전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② ㉠:광주 지사에는 서비스 분야 담당이 아닌 A사 직원도 있다㉡:갑이 경영학 전공자일 경우에만 서비스 분야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광주 지사에는 서비스 분야 담당이 아닌 A사 직원도 있다㉡:갑이 서비스 분야 담당인 경우에만 경영학 전공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광주 지사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중에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갑이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A사의 서비스 분야 직원 중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전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⑤ ㉠:광주 지사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중에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갑이 서비스 분야 담당인 경우에만 경영학 전공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13. 다음 밑줄 친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개의 전자는 하나의 물리계를 이루어 단일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이들 전자 쌍을 중앙 발사기에서 양쪽으로 발사하면, 하나는 왼쪽 분석기로, 다른 하나는 오른쪽 분석기로 이동한다. 분석기는 전자의 스핀 상태를 측정하게 되는데 각 분석기는 '위' 또는 '아래'를 곧장 출력하게 된다.

두 분석기의 측정결과들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랐다. 한쪽 분석기에 '위'가 출력되면 다른 분석기는 '아래'가 출력되었고, 그 역도 성립했다. 놀랍게도 두 분석기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상관관계는 유지되었다. 한편 두 분석기의 출력은 동시에 벌어지며 두 사건 사이에 시간 간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산출하기 위해 만일 두 전자 사이에 정보전달이 있었다면 이 정보전달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편 전자 쌍의 스핀 측정결과가 갖는 이러한 상관관계는 다음 셋 중에 하나로 설명해야 한다. 첫째, 이 상관관계는 두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이를 '상호작용 논제'라 한다. 둘째, 이 상관관계는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공통요인의 결과이다. 이를 '공통요인 논제'라 한다. 셋째, 이 상관관계는 측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창출된 것이다. 이 논제를 '측정과정 논제'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원리가 있다. 하나는 국소성 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만일 두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면 두 입자 사이에 정보전달이 있다. 다른 하나는 상대성 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한 입자에서 떨어진 다른 입자로 정보가 전달될 때는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 한편 1964년 존 벨은 상대성 원리와 국소성 원리를 가정한 상태에서 공통요인 논제까지 가정할 경우, "$-0.5 \geq 0$"처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등식이 도출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존 벨의 증명이 타당하고 또한 측정결과에서 나타난 저 상관관계가 사실이라면, <u>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u>

① 상대성 원리와 국소성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측정과정 논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상대성 원리와 국소성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상호작용 논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 상대성 원리와 국소성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공통요인 논제를 거부해야 한다.

④ 상대성 원리와 공통요인 논제를 받아들인다면, 국소성 원리를 거부해야 한다.

⑤ 국소성 원리와 공통요인 논제를 받아들인다면, 상대성 원리를 거부해야 한다.

14.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일은 의무가 아니다.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주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불가능'은 여러 의미로 읽힌다. 어떤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가령 우리가 화성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어떤 물리법칙도 위반하지 않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현대 과학기술의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일은 의무가 아니다."라는 주장 속에 등장하는 '불가능'의 의미는 둘 중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이 '불가능'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가령 먼 우주의 생물을 보호하는 일을 생각해보자. 이 일은 현대 과학기술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가능'을 이렇게 이해하면, 먼 우주의 생물을 보호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도출된다. 이처럼 이 해석은 우리가 직면한 일들 중에서 무엇이 의무가 아닌지 설명해 준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현실적 불가능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에 무엇이 의무가 아닌지 결정하기 어렵다.

둘째 해석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일은 의무가 아니다."라는 주장 속에 등장하는 '불가능'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무엇이 의무인지는 다소 분명하게 결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 불가능성에 비해, 물리적 불가능성의 기준을 제시하기는 쉽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바로 물리법칙의 위반 여부이다. 앞에서 언급한 먼 우주의 생물을 보호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 일은 어떤 물리법칙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일은 의무가 아니다."라는 주장으로부터 먼 우주의 생물을 보호하는 일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도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불가능'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보 기>

ㄱ. '불가능'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은 의무이다.

ㄴ. '불가능'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무엇이 의무가 아닌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ㄷ.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 중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포유류인 사람은 어릴 때 젖을 먹는다."에서 '포유류인'은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어이다. '포유류인 사람'은 "모든 사람은 포유류이다."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유류인 사람은 어릴 때 젖을 먹는다."는 "모든 사람은 포유류이고, 모든 사람은 어릴 때 젖을 먹는다."와 동치이다. 이와 같은 동치를 만들어내는 관형어를 'A류 관형어'라 하자.

하지만 "포유류인 동물은 새끼를 많이 낳지 못한다."는 "모든 동물은 포유류이고, 모든 동물은 새끼를 많이 낳지 못한다."와 동치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몇몇 동물은 포유류이고, 동물이면서 포유류인 모든 것들은 새끼를 많이 낳지 못한다."와 동치이다. 이와 같은 동치를 만들어내는 관형어를 'B류 관형어'라 하자.

"그려진 사람은 피가 없다."는 "모든 사람은 그려진 것이고, 모든 사람은 피가 없다."를 뜻하지 않는다. 또한 그 문장은 "몇몇 사람은 그려진 것이고, 사람이면서 그려진 모든 것은 피가 없다."를 뜻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그려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려진 것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는다. '포유류인 동물'이라는 표현은 동물들을 가리키지만 '그려진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렇지 않다. '그려진 사람'이 가리키는 것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물이다. "그려진 사람은 피가 없다."에서 '그려진'이 하는 역할처럼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물을 만들어내는 관형어를 'C류 관형어'라 하자. 물론 한 관형어가 맥락에 따라 A류로 쓰일 수도 있고, B류 또는 C류로 쓰일 수 있다.

<보 기>

ㄱ. "고위 공직자인 장관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가 참이고 이 문장에서 '고위 공직자인'이 A류 관형어로 사용되었다면, 장관 중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ㄴ. "개성에서 생산된 의류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가 참이고 이 문장에서 '개성에서 생산된'이 B류 관형어로 사용되었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중에는 개성에서 생산된 것이 있다.

ㄷ.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웅이다."에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이 C류 관형어로 사용되었다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6.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밑줄 친 주장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추가되어야 하는 전제는?

> 우리는 흔히 몸의 움직임을 행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행동이 모두 행위인 것은 아니다. 이제 다음 사례를 생각해보자. 영수는 평소 뒷산에서 떠온 약수를 즐겨 마신다. 어느 날 야외에서 운동을 했던 영수는 갈증을 느꼈다. 그는 냉장고에 있는 약수를 마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냉장고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냉장고에는 약수통이 없었다. 실망한 영수는 수돗물을 마시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는 수돗물 통에서 물을 부어 마셨다. 하지만 그 수돗물 통에는 약수가 들어 있었다. 그는 수돗물과 약수의 맛을 구분하지 못한 채 약수를 마시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행동을 야기한 유일한 의도는 수돗물을 마시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u>이 약수를 마시는 행동은 행위가 아니다.</u>

① 어떤 의도가 우연히 실현된 행동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② 행위자는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행동을 할 수 있다.

③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시점에 행위자는 여러 의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④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그 행동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행동은 행위가 아니다.

⑤ 행위자가 과거에 가졌던 의도들 중에서 무엇이 실현되었는지에 따라서 행위 여부가 결정된다.

17. 다음 글을 비판하기 위한 통계자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미국에서 시민들이 지역공동체 참여 활동에서 이탈하는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그럴듯한 것은 사회 전체가 바빠졌다는 점이다. 공동체 활동에 불참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핑계가 바로 이것이다.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미국인이 가장 많이 꼽는 것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이다.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 역시 '너무 바빠서'이다. 분명히 현 세대는 한 세대 이전의 미국인에 비해 더 바쁘다고 느낀다. '항상 쫓기는 기분'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960년대 중반에 비해서 1990년대 중반에 절반 이상이나 상승했다.
>
> 아울러 "우리는 거의 언제나 열심히 일한다.", "자주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한다."라고 대답한 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장 바쁘다고 느끼는 집단은 직업적 측면에서는 주로 대학교육을 받은 정규직 직장인, 연령적 측면에서는 25세에서 54세 사이의 남녀, 가정적 측면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등의 집단이다. 이런 결과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집단들이 과거 공동체 생활에 특히 적극적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심각한 일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를 공동체 참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범인은 늘어난 노동시간이다.

<보 기>

ㄱ. 1960년대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ㄴ. 1960년대 이후 노동시간이 늘어난 집단과 노동시간이 줄어든 집단 모두에서 시민 활동 시간이 감소했다.

ㄷ. 1960년대 이후 맞벌이가정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8. 다음 글의 (가)와 (나)의 반례로 적절한 것은?

> 당신이 경험하는 치통, 두통, 허기, 포만감과 같은 것들은 정신적인 것이지만 치통을 야기하는 치아의 상태, 포만감을 야기하는 위의 상태는 정신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신적인 것들이 가진 고유의 특성들을 제시해왔다. 이런 특성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은 정신적인 현상에 대한 인식과 그렇지 않은 현상에 대한 인식 사이의 차이, 즉 인식적 특성상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철학자들은 정신적 상태가 가진 고유한 인식적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주장을 한다.
>
> (가) 자신이 어떤 정신적 상태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틀릴 수 없다.
>
> (나) 자신이 어떤 정신적 상태에 처해 있다면 이 사실을 모를 수 없다.
>
> 위에서 (가)는 우리가 어떤 정신적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은 틀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당신이 고통스런 정신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실제로 당신은 그런 정신적 상태에 있고, 따라서 당신의 믿음은 틀릴 수 없다. 한편 (나)는 (가)와 다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당신이 고통이라는 정신적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밖에 없다.

① (가)의 반례:철수는 머리가 무거움을 느껴 두통이 심한 상태라고 믿지만 그는 두통이 없는 상태이다.

② (가)의 반례:영수는 무릎을 심하게 다쳐 아픈 상태이지만 그는 아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③ (나)의 반례:지수는 자신의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고 믿고 있지만 그의 심장에는 별 이상이 없다.

④ (나)의 반례:정수는 치열한 교전 중에 총상을 입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⑤ (나)의 반례:친한 친구가 사고로 사망을 했지만 민수는 슬프지 않다.

19. 위 글의 내용으로부터 현명이는 “철이는 영이를 좋아하지 않고 영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위 글의 내용으로부터 이러한 결론이 반드시 따라나오지는 않는다. 이 결론이 반드시 따라나오기 위해 추가될 전제로 적절한 것은?(19번 공통지문 문제)

① 영이는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영이는 건강한 여성이 아니다.

② 영이는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돌이는 영이를 좋아한다.

③ 석이는 영이를 좋아하지 않고 돌이는 영이를 좋아한다.

④ 영이는 건강한 여성이 아니고 돌이는 영이를 좋아한다.

⑤ 석이는 영이를 좋아하지 않고 영이는 건강한 여성이다.

20.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조선후기 풍속화는 18세기 전반에 공재 윤두서, 겸재 정선 등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중국풍에 의해 지배되던 관념적 인물화를 벗어나 우리의 의관을 갖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들의 풍속화는 각자의 장점과 개성에 따른 다양성을 갖추고 있었는데, 초창기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일부 보수적 한계의 과도기성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풍속화가 가지는 기본적인 공통성인 주체적 자각의식과 사실주의 정신 및 감상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왜 이 시기에 이러한 성격의 풍속화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이에는 어떤 역사적 계기와 사상적 동인이 작용하고 있었는가? 18세기 전반은 조선의 여러 역사적 경험이 문예로 구현되면서 진경산수화, 풍속화, 남종화 등에 반영되어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던 시기였다. 이러한 동시대성이라는 커다란 공통성 속에 담긴 다양성, 즉 한 사람의 작가가 서로 상충되는 성격의 이질적인 화풍을 동시에 구사하기도 하며 서로 대립적인 사상적 지향성을 가진 작가들 사이에서도 동질적인 성격의 화풍이 나타나기도 하는 이 중층적인 다양성은, 18세기 회화를 하나의 일관된 사상적 체계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이 시기의 회화에 작용한 계기와 동인들이 얼마나 역사적이면서도 개인적이고, 얼마나 정치적이면서도 문화적이었던가를 보여주는 복합성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성과 다양성은 풍속화에 있어서 특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풍속화가 등장하게 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의 발달 및 서민의식의 성장에 따라 우리의 고유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서민들의 실제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는 조선중화사상과 문화자존의식의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노론계 선비들은 병자호란에서 당한 민족적 치욕을 극복하는 길로써 우암 송시열이 주창한 바 있는 조선중화사상을 수용하였다. 즉 명청(明淸) 교체라는 국제정세의 변동을 주자학적 명분론인 화이론(華夷論)으로 해석하여 이제 중국 문화권 내에서는 성리학과 예학이 가장 발달한 것이 조선이며, 따라서 조선이 바로 중화이고 최고의 문화권이라는 자긍심을 공유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화자존의식이 예술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회화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평을 가져왔던 것이다.

① 윤두서의 풍속화에서는 사실주의 정신이 뚜렷이 나타났다.

② 서민의식의 성장이 조선후기 풍속화 등장의 한 요인이었다.

③ 조선이 바로 중화라는 생각은 중국풍 그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④ 조선후기 풍속화와 진경산수화에는 조선의 역사적 경험이 반영되었다.

⑤ 서로 대립적인 사상을 가진 작가가 비슷한 화풍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21. 다음 글의 문맥상 (가)와 (나)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순서대로 (가), (나))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은 청각적으로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서로의 말을 어렵잖게 이해한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를 이미 내가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상대방이 발화한 단어의 의미와 단어들 간 조합 규칙에 관한 지식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말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대방과 나는 대개 같은 공간, 같은 경험 상황에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함께 사진을 보거나 광고판을 본다. 대화는 함께 하고 있는 일이나 함께 있는 장소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둘이 하는 이야기는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지시하며, 그 공통적인 사건들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운전 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도 여기 있다.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편이 어떤 공통의 맥락을 떠올려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는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도로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의 노력은 이런 주의를 분산시키게 되고 그에 따라 자연히 위험이 발생한다. 주목할 점은, 같은 종류의 대화를 나누더라도 운전자가 동승자와 나누는 대화에서는 이런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적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가)] 이에 비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 그 이유는 [(나)]

<보 기>

ㄱ. 상대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단어의 의미와 단어들 간 조합 규칙 등에 대한 지식을 떠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ㄴ. 서로가 각자의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ㄷ. 상대방이 발화한 단어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ㄹ. 대화가 상대방과 공통된 경험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ㄹ ㄷ

2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현대예술의 병적인 상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대 예술가들이 사회 진보에 봉사하기보다 자신들만의 내적 현실을 응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그 이유를 부르주아 사회에서 야기된 인간소외를 현대 예술가들이 인정하기 꺼려하는 데서 찾는다. 그들은 현대 예술가들이 부르주아 사회에 의해 '현실'로 규정된 상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것이 인간소외라는 사회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결국 현대 예술가들은 사회 현실을 저버리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 상태에 대한 기대조차 갖지 못한 채, 오히려 비정상의 상태를 자신들의 예술 척도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예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현대 예술가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 상태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미를 지닌다. 그런 경우 우리는 현대 예술가들에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공헌할 수 있도록 그들 예술의 기초를 세우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 상태를 아무런 의문의 여지없이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현대예술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현대예술에서 인간이란 늘 자기자신을 포함하여 무언가를 탐색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현대예술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무언가를 분명히 확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부터 사회적 역할에 이르기까지 혼돈을 느끼는 존재라고 전제한다. 이런 점에서 현대예술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분명하게 제안하거나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인간에 대한 전제가 자유를 위한 여지를 남겨준다. 만약 인간에게 의심할 바 없는 어떤 의무와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주장된다면 인간의 자유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신을 탐색해 나가는 존재라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더 이상의 물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인간의 탐색 자체를 축소시키는 모든 기획은 거부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예술은 명확해 보이는 하나의 답을 인정함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을 거부하고 기꺼이 병적인 상태가 보여주는 혼란스런 자유를 선택한 것이다. 현대 키취예술이 보여주는 매력도 바로 거기서 찾을 수 있다.

① 현대예술은 인간이 무언가를 탐색하는 존재라고 보며 혼란스런 자유를 선택한다.

② 현대예술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 상태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

③ 현대예술은 인간소외 이외의 다른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비판받는다.

④ 현대예술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지만, 이로부터 예술의 기초를 세우지는 못한다.

⑤ 현대예술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참여하는 인간이라야 스스로 병적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2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선전기에 성에 관한 법률은 혼외의 성관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간은 말할 것도 없고 남녀가 서로 뜻이 맞아 행한 일반 성관계, 법률상 용어로 화간(和姦)도 범죄에 해당하였다. 특히 오늘날과 달리 기혼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만이 아니라 미혼 남녀의 화간도 간통죄로 처벌받았다. 화간은 장80대로 처벌되었는데, 남편이 있는 여자가 화간한 경우 여자는 한 등급을 높여 장90대의 형에 처하였다. 은밀하게 간통을 하는 화간과 달리 공공연하게 간통 행위를 하는 조간(刁姦)의 경우에는 화간보다 두 등급 높은 장100대에 처하였으며, 기혼 여성은 여기에서 다시 한 등급을 더 높여 강제 노역을 하는 도형(徒刑)으로 처벌하였다. 강간범의 경우에는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형(絞刑)에 처하였고, 강간 미수범은 여기에서 한 등급을 낮추어 장100대를 때리고 3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게 하였다. 이때 피해 여성은 처벌하지 않았다. 간통을 해서 낳은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간통을 한 남자가 아이의 양육을 책임졌으며, 간통을 한 여자가 남편이 있을 경우 남편이 그 여자를 노비로 팔 수 있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신분이 다른 남녀 사이의 간통은 신분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 종이나 머슴이 주인의 아내나 딸을 간통한 경우 화간인 경우에도 목을 잘라 죽이는 참형에 처하였고, 남자 종이 평민의 부녀자와 간통한 경우에는 일반인 사이의 간통죄보다 한 등급을 높여 처벌하였다. 특히 조선후기가 되면 평민 또는 천민의 남자와 양반 부녀자와의 성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법규를 추가로 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여자 종의 남편이 자기 아내의 상전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간통한 남녀 모두 즉시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평민이나 천민이 양반의 아내나 딸을 겁탈하려한 경우에는 미수에 그쳤을 지라도 즉시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보 기>

ㄱ. 신분이 같은 유부남 갑돌이와 유부녀 갑순이가 화간하여 아들을 낳았다면, 갑돌이의 형량은 장80대, 갑순이의 형량은 장90대이며, 아들의 양육은 갑돌이가 책임졌을 것이다.

ㄴ. 처자식이 있는 평민 을돌이가 처녀인 평민 을순이와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을돌이의 형량은 도형이고 을순이의 형량은 장100대일 것이다.

ㄷ. 조선전기의 평민 병돌이가 양반의 아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그의 형량은 장100대에 3천리 밖으로의 유배일 것이지만, 조선후기의 평민 정돌이가 양반의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그의 형량은 참형일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소위 동양주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동양 제국(諸國)이 단결하여 서양 세력의 동진(東進)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동양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감히 단언컨대 동양주의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다. 이들은 수천 년 살아온 영토를 다른 나라에 바치고 2천만 형제를 남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들은 동양주의란 말을 억지로 만들어 지금은 동서지역과 황백(黃白)인종의 경쟁시대임을 내세운다. 동양이 흥하면 서양이 망하고, 서양이 흥하면 동양이 망하니 두 세력은 조화를 이뤄 양립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동양의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해 서양에 대항할 때이니, 그런 즉 동양인이 서양인에게 나라를 팔면 죄가 되나, 나라를 판 자도 동양인이요 산 자도 동양인이면, 비유컨대 초(楚)나라 활을 초나라가 얻은 바와 같으니 무슨 죄가 되리오 라고 자신들의 행위를 변호한다. 이는 위로는 하늘을 속이고 아래로는 동포를 속이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외국인에게 아첨하는 자들이다. 국세(國勢)가 약화되고 국권(國權)의 대부분이 외국인의 수중에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러 외국인들이 대한(大韓)의 국혼(國魂)을 없애려 하자, 이 뜻을 알아차린 이들은 사욕(私慾)을 위해 기계(奇計)를 내어 나라의 국혼을 앞장 서 없애려 한다. 허나 직접적으로 동포를 향해 너의 나라를 잊고 외국을 섬기라, 조국을 등지고 외국을 떠받들라 하면, 무지한 아이들조차 분노할 것이니 동양주의라 일컫는 마설(魔說)을 꾸며낸 것이다.

이들은 또한 독립된 주견(主見)없이 세태에 따라 움직이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대한의 존망이 걸린 문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고, 다른 사람이 개화하면 자신도 개화하여 시세(時世)에 따라 좇겨 다니니, 일진회(一進會)의 동양주의를 얻어 듣고 일본의 동양공영론(東洋共榮論)을 믿는다. 이들은 일본이 대한의 뺨을 때리면 성내는 것이 당연하나 같은 동양이니 성내지 말라 하고, 일본이 대한의 피를 빨면 원통하나 같은 황인종이니 원통할 것 없다 한다. 이들은 자신의 국가를 잊고 동양주의에 취해 동양이 주인 되고 국가가 손님 되어, 동양의 번영이 곧 국가의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설파한다.

① 동양주의자들은 대한이 번영해야 동양이 번영한다고 주장한다.

② 동양주의자들은 대한의 국혼(國魂)을 보존하고자 외국인에게 아첨한다.

③ 동양주의자들은 노력에 따라 번영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있다.

④ 동양주의자들은 동양과 서양의 힘의 균형을 통한 세계평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⑤ 동양주의자들은 동양인들끼리 나라를 사고 파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

2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생물 다양성, 곧 지구상 종의 수에 대한 현재의 추정치는 200만에서 1억까지 편차가 크다. 아직까지도 오늘날의 생명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데이터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200만 종이라는 최저치는, 명명된 종들을 검토하여 예상한 최선의 추정치이다. 현재까지 과학문헌에서 명명된 종의 수는 150만 개 정도이다. 물론 이명(異名)을 고려할 때 이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명이란 한 가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이명률(異名率)은 거의 20%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지금도 크고 작은 박물관과 연구소 간행물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학술지들에서 새로운 종의 발견이 계속 기술되고 있다. 그 중 20%는 이명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미지의 종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

곤충학자들은 해마다 7,000~8,000개씩 새로운 종을 만난다. 현재까지 그들이 과학문헌에서 명명한 종만 해도 120만 개를 넘지만, 아직 새로운 종의 발견이 끝났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등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경우는 갈 길이 더 멀어 보인다. 미생물은 곤충보다 종의 다양성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미생물학자들은 현재 미생물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예상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심해생명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은 특수 장비로 심해에서 끌어올린 유해들이 고작이다. 더구나 심해생명체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면 환경차이로 인하여 거의 다 죽어버린다. 중형저서생물들은 온전히 미생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생물에 가깝고, 투명하고 부드러운 몸을 가진 벌레 같은 생명체로서, 모래입자와 토양입자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그것들이 존재하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소수의 계통학자들만 그것들을 밝혀 과학문헌에 명명하고 있는 형편이다.

① 중형저서생물은 1960년대 이후에야 기록되기 시작했다.

② 심해생명체를 살아있는 상태로 연구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③ 곤충학자들은 해마다 미생물학자들보다 더 많은 새로운 종을 발견한다.

④ 명명된 종들 중에서 곤충이 아닌 나머지 생물 종들의 수는 곤충보다 많지 않다.

⑤ 과학문헌에 기재된 종들 중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종들의 수는 명명된 종들의 수보다 적다.

26.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먹거리'란 산업형 또는 포드주의 농업 방식에 의해 생산되어 세계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재료 또는 그러한 식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포함한 먹거리를 지칭한다. 현대 먹거리는 전통 사회의 먹거리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전통 사회에서는 식재료의 대부분이 소비자가 사는 지역에서 생산됐으나 현대 먹거리의 경우 그렇지 않다. 약 150년 전의 서양에서는 먹거리의 95%가 지역 교회의 첨탑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반경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그래서 먹거리와 그것을 먹는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대 먹거리는 그 연결고리를 잃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의 먹거리는 공간의 맥락을 잃은 먹거리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식탁에 오르는 대부분의 식재료는 수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생산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 식재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었는지, 얼마나 먼 곳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것을 먹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떻게 생산했는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현대 먹거리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생산되고 있다. 이전에는 자연적인 여건에 따라 특정 식재료가 특정한 철에만 생산되었으나 이제는 제철에 관계없이 생산된다. 이제 먹거리는 시간의 맥락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또한 축산물이나 수산물까지도 자연의 속도가 아니라 인위적인 속도로 빠르게 생산되고 있다. 성장호르몬이나 사육법과 양식 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현실을 가져왔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도 자연의 흐름을 거스른 것이다. 병충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명분하에 유전자를 조작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생산, 유통되고 있다.

셋째, 이전에는 대부분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인스턴트식품과 냉동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요리 과정이 단축되어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고, 집에서의 식사 횟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짧은 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일과 식사를 동시에 하는 행위,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는 따위의 현상이 자연스러워졌다.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를 즐기는 것은 점점 예외적인 일이 되어 가고 있다.

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고 신속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은 현대 먹거리의 특징을 지닌다.

② 글쓴이는 현대 먹거리에 부정적이며 전통 사회의 먹거리 생산 방식으로 회귀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한다.

③ 병충해 방지와 식량의 증산을 위해서 사육기간을 단축하고 유전자 조작 식품을 생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④ 이력추적제를 통해 누가, 언제, 어떻게 생산했는지 알 수 있는 소고기의 경우 시간적 맥락에서는 전통 사회 먹거리의 특징을 지닌다.

⑤ 온실 채소는 계절에 관계없이 사철 공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간의 맥락이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현대 먹거리의 특징을 지닌다.

27.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백인의 피부는 색이 옅어서 햇빛의 자외선이 피부를 잘 통과하게 된다. 반면 흑인은 자외선이 통과하기 힘든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를 통과한 자외선 양에 비례하여 신체 내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

비타민 D의 체내효과는 비타민 D에 반응한 세포의 수와 반응한 세포의 반응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반응한 세포의 수는 체내 비타민 D의 양에 비례한다. 세포의 반응정도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 D 수용체의 수에 비례한다. 세포에서 수용체 수가 증가되는 것을 상향 변화라고 하고, 감소되는 것을 하향 변화라고 한다. 체내의 비타민 D가 많아지면 비타민 D에 반응한 세포에서 하향 변화가 나타나고, 적어지면 상향 변화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비타민 D의 체내효과에 관한 조절은 인종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며 몸을 균형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① 인위적인 비타민 D의 섭취는 상향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② 비타민 D 수용체의 수가 줄어들면 체내의 비타민 D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③ 햇빛이 있는 동일 지역에서 백인보다 흑인이 비타민 D의 체내효과가 더 클 것이다.

④ 햇빛이 있는 동일 지역에서 흑인보다 백인이 비타민 D에 반응하는 세포가 더 많을 것이다.

⑤ 어떤 사람이 자외선이 적은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 사람의 비타민 D 수용체 수는 감소할 것이다.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다운로드]

2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 미국과 영국은 대기업들이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매우 희귀한 나라들이다. 영국의 경우 1970년대에 기관투자가들의 압력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미국의 경우에 이같은 결과는 1930년대에 이루어진 뉴딜 행정부의 세제개혁에 힘입은 바가 크다. 1913년에 미국의 세법은 기업 간 배당과 다른 소득을 구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1918년의 세법은 주식 배당을 포함하는 기업 간 배당을 전액 세액공제 대상 항목으로 만들어 놓았다. 캐나다 경제학자인 모크에 의하면, 1920년대에 미국에서 기업집단이라는 조직이 번성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 1935년에 이루어진 미국 상원 청문회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그 회사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지주회사와 이에 계열화된 중간지주회사 및 일반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이 야기하는 조세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 예로, 어떤 기업집단은 1933년 12월 현재 약 270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28개는 여러 주에 널리 퍼져 위치한 일반회사였고, 적어도 31개가 중간지주회사로 분류되었다. 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이 통합적으로 수익을 신고했던 기간인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단 한 해도 납부한 세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35년 6월 19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법개정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를 조장하는 지주회사들을 완전히 일소하라고 요구했다. 1935년 세법은 기업 간 배당에 대해 10%의 세율을 부과했고 1936년에 이 세율은 15%로 인상되었다. 나아가 이 과세 제도는 피라미드식으로 기업을 소유할 경우에 피라미드 단계가 늘어날수록 과세율도 높아지도록 고안되었다. 그와 동시에 1935년의 세법은 계열화된 자회사를 완전히 청산할 경우에 당시 발생했던 모든 배당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감면해 주는 유인책도 포함하고 있었다. 모크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는 기업집단이 사라짐에 따라 이 과세가 기업집단의 해체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인식도 사라졌다고 한다. 그와 더불어 이 과세가 당초에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① 현재 세계적으로 기업집단에 속하여 있는 대기업을 가진 나라가 많다.

②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세제개혁은 당근과 채찍을 모두 포함한 것이었다.

③ 영국에서 대기업들이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게 된 원인은 미국의 그것과 다르다.

④ 오늘날 미국인들은 세수 증대의 방편 중 하나로 현재 미국 기업집단의 해체를 들고 있다.

⑤ 미국의 1918년 세법과 1936년 세법은 기업 간 배당에 대해 각기 상이한 과세원칙을 적용했다.

29.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내분비선은 호르몬을 분비하여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기관을 조절한다. 호르몬은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세포는 세포막 또는 세포 내부에 호르몬과 결합하는 수용체를 갖고 있다. 호르몬은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그 세포에 여러 변화를 일으킨다. 예컨대 호르몬 알파는 간세포가 저장하고 있는 다당 물질을 단당 물질로 분해하도록 한다. 호르몬 알파와 결합하는 수용체 형태는 a형과 b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수용체는 모두 세포막에 존재한다. 같은 유형의 세포라 하더라도 세포마다 수용체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유형의 혈관세포임에도 골격근의 혈관세포는 a형 수용체를 갖고 있고 장의 혈관세포는 b형 수용체를 갖고 있다. 이 점은 호르몬 알파가 골격근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장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줄 것이다. 또한 다른 유형의 세포라 하더라도 같은 형태의 수용체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a형 수용체는 골격근 혈관세포뿐만 아니라 간세포에도 있다.

<보 기>

ㄱ. 같은 유형의 두 세포에 대해, 이들 세포의 수용체 형태가 다르다면 호르몬 알파는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ㄴ. 다른 유형의 두 세포에 대해, 이들 세포의 수용체 위치가 같다면 호르몬 알파는 같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ㄷ. 다른 유형의 두 세포에 대해, 이들 세포가 같은 형태의 수용체를 갖고 있다면 호르몬 알파는 같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30. A, B, C 세 사람이 어떤 표결에 참여해 찬성했거나 반대했거나 기권했다. 그리고 표결이 끝난 후 세 사람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진술을 각각 했는데, 그 두 진술 가운데 하나는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다. 반드시 참인 것은?

A: - 나는 찬성했다.
  - B와 C 중 적어도 하나는 찬성했다.
B: - A는 찬성했고, C는 기권하지 않았다.
  - 나는 기권했다.
C: - A는 기권했고, B는 찬성했다.
  - 나는 기권했다.

① A와 B는 모두 찬성했다.

② A와 B는 모두 기권했다.

③ A와 C는 모두 찬성했다.

④ B와 C는 모두 반대했다.

⑤ B와 C는 모두 기권했다.

31. 다음 글의 영희의 논증이 성립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가정은?

영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상들은 모두 경험 대상이야.
철수: 왜 그렇게 생각해?
영희: 일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상들은 관찰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구분될 수 있어. 가령 내가 지금 상상하는 대상이 노란 개나리라고 해 봐. 그 대상은 내가 언젠가 보았던 개나리야.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개나리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 대상은 우리가 바로 좀 전에 본 개나리야. 그리고 관찰된 대상은 모두 경험 대상이지. 그러므로 상상한 노란 개나리는 관찰된 노란 개나리이므로 경험 대상이야.
철수: 그러네. 우리가 상상한 노란 개나리는 우리가 관찰했던 것들이니까 경험 대상이겠네.
영희: 맞아. 문제가 되는 것은 관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유형이겠지. 용, 해태 같은 것들은 언뜻 상상만 할 수 있는 대상들처럼 보여. 그런데 그러한 대상들이 순수하게 우리의 생각만으로 구성될 수 있을까? 용의 경우를 보자고. 우리가 용의 부분들도 관찰할 수가 없을까? 아니야. 용은 뱀의 몸통과 악어의 다리, 사슴의 뿔 등을 갖고 있어. 즉 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모두 우리가 관찰한 것들이지.
철수: 그런데?
영희: 내 말은 관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상의 대상들이 모두 그런 관찰된 대상들을 통해 구성된다는 것이야. 즉 용은 우리가 관찰한 뱀, 악어, 사슴 등등으로부터 구성된 것이지. 그러므로 관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상의 대상들도 마찬가지로 경험 대상들인 것이지.

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관찰 대상이다.

②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

③ 관찰된 대상들로 구성된 대상도 관찰된 대상이다.

④ 관찰되지 않은 대상은 경험 대상을 통해 구성된다.

⑤ 경험 대상이 아니지만 상상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32. 다음 <현상>을 <이야기>에 비유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단, 금속 표면에 쪼인 빛은 바깥에서 은행 안으로 건네준 돈에 비유되고 있다)

<현 상>

헤르츠는 1887년 금속에 빛을 쪼였을 때 금속 표면에서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금속 표면의 전자가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그 에너지 일부를 써서 원자핵의 구속에서 벗어나며, 남은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어 튀어나온 것이다. 헤르츠는 더 센 빛을 쪼이면 표면에서 튀어나오는 개별 전자가 이전보다 더 큰 운동에너지를 지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빛의 세기를 늘린다는 것은 가령 전구의 개수를 늘리는 것과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표면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만 많아질 뿐 개별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커지지 않았다. 헤르츠가 빛의 진동수를 바꾸어서 금속 표면에 쪼였더니 개별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바뀌었다. 쪼인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컸다. 또한 쪼인 빛의 진동수가 어느 임계점보다 작으면 아무리 센 빛을 쪼여도 전자는 튀어나오지 않았다. 진동수가 같은 단색광에 의해 튀어나온 전자들은 그 단색광의 세기가 어떠하든 모두 똑같은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당연히 빛의 진동수가 전자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을 셀 수 있는 입자로 간주하고, 빛 입자 하나의 에너지는 오직 빛의 진동수에만 비례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위의 현상을 설명해 내었다.

<이야기>

은행 강도는 은행 금고에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행 고객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었다. 인질들은 한 푼의 돈도 갖고 있지 않았다. 바깥의 사람들은 은행에 남겨진 인질들이 무서워 떠는 것을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은행 강도는 인질들 중 누구든지 5천원을 내면 밖으로 보내준다고 제안했다.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남겨진 인질들이 무슨 돈이 있겠냐고 강도에게 따졌다. 강도는 선심을 쓰듯이 당신들이 인질에게 돈을 주면 이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은행에 남겨진 사람은 두 번 이상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바깥에서 많은 동전을 던진다 해도 인질들은 5천원을 모을 수 없다. 하지만 바깥에서 만 원짜리 지폐를 인질들에게 주면 그들은 5천원을 강도에게 내고 곧바로 풀려날 수 있다. 만 원짜리 지폐를 많이 건넬수록 인질들은 더 많이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풀려난 사람들은 모두 5천원의 거스름돈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풀려난 사람들 중 5천원을 넘는 거스름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① 금속 표면의 원자는 은행 안에 갇힌 인질에 비유되고 있다.

② 빛의 진동수는 바깥에서 건네준 돈의 개수에 비유되고 있다.

③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인질이 강도에게 내야 하는 금액에 비유되고 있다.

④ 표면을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는 풀려난 인질이 받은 거스름돈의 액수에 비유되고 있다.

⑤ 금속 표면의 전자 하나가 빛에서 받은 에너지는 바깥에서 건네받은 돈 하나의 금액에 비유되고 있다.

33.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우리 회사 직원인 김 대리와 이 대리는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회사의 규정대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김 대리와 이 대리가 어떤 징계를 받을지 결정하기 전에 회사 직원 및 업무와 관련해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어떤 직원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업무는 아주 손쉬운 업무여서 우리 회사 직원 누구나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들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규정상,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직원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정도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한 명의 직원만 처리할 수 있는 회사 업무를 생각해 봅시다.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에게 해당 업무 처리를 지시했을 때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직원은 중징계를 받습니다. 단 한 명의 직원만 처리할 수 있는 회사 업무가 아닐 경우, 그 업무 처리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은 경징계를 받습니다.

최근 회사는 재고 정리 업무, 제품 검사 업무, 해외 시장 조사 업무를 맡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 직원들을 검토한 뒤, 김 대리에게 재고 정리 업무를 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대리에게는 제품 검사 업무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회사 업무 중에서 김 대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재고 정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품 검사 업무는 우리 회사에서 이 대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김 대리와 이 대리 모두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보 기>

ㄱ. 김 대리는 중징계를 받는다.

ㄴ. 재고 정리는 모든 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이다.

ㄷ. 이 대리는 해외 시장 조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34. 다음 (가)~(마)의 관계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가) 기술은 단순히 우리가 가리키고, 무게를 재고,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일 뿐이다. 먼 미래에 활동할 고고학자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기억한다.
(나) 방진은 고대 그리스의 군사기술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는 기존의 방패와 창을 들고 있는 보병들을 네모꼴로 배치하는 혁신 아이디어이다. 유럽의 농업기술은 농지를 셋으로 분할하여 윤작하는 삼포작법을 도입해 크게 발전했다. 여기에 토지나 농기구 차원의 변화는 없었다. 이른바 과학경영법의 창시자 테일러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작업 유형을 개발했다. 오늘날 대량 생산 시대에 그가 고안한 경영기술은 엄청난 생산 효율성을 가져왔다. 기술 변화는 물질 변화 그 이상이다.
(다)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관념이나 지성의 도움으로 획득했다고 해서 그런 관념이나 지성을 기술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예컨대 0을 포함한 아라비아 숫자는 수학 연구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계산을 크게 용이하게 했지만 이런 비물질 요소를 기술이라 해서는 안 된다.
(라) 기술은 사람이 지닌 목적 하에 지성으로 설계된 것이다. 원시시대의 우리 조상이 사용했던 거친 돌도끼와 같이 그저 발견된 연장조차도 일정 목적 하에 지성을 써서 선택한 물질이다. 근대 사회의 하이테크 기계를 창안하는 데도 지성이 반드시 개입되어 있다.
(마) 플라스틱 시대 직전에 살던 사람들은 아마도 기술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금속이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산업 혁명기인 철의 시대에서도 인공물들은 고무, 유리, 나무 등 다른 물질을 포함했다. 기술시대를 특정 물질에 근거하여 구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① (가)와 (다)의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

② (나)의 사례들은 (가)의 주장을 강화한다.

③ (나)의 사례들은 (라)의 주장을 약화하지 않는다.

④ (다)는 (가)의 주장을 약화한다.

⑤ (라)와 (마)의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

35. 다음 대화에서 갑과 을 모두가 동의하는 주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그런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날그날 알차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
을: 그렇지. 그날그날 알차게 사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일 테니까.
갑: 그날그날 알차게 사는 사람에겐 인생 전체에 걸쳐 이룰 인생의 목적 같은 건 없어. 넌 누군가의 인생이 네 생각에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여겨지면 그런 인생에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그냥 단정할 뿐이야.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인생에는 당연히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날그날 알차게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포부를 갖고 예술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보자. 그는 이제야 드디어 자신에게 인생의 목적이 생겼다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을: 그건 인생의 목적이 그날그날 알차게 사는 것에서 예술가가 되는 것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
갑: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이라면 새로운 목적은 예전 목적보다 더 나은 것이겠지? 만약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나은 목적이고 다른 하나가 그렇지 못한 목적이라면, 둘 다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야. 예전 목적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나, 만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인생의 '뚜렷한' 목적은 아니었던 거야.

<보 기>
ㄱ.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바꾼다.
ㄴ. 그날그날 알차게 사는 사람의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다.
ㄷ. 살면서 목적이 바뀌었다면 그 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없었던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36. 다음 글의 주장을 약화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지능 테스트와 관련하여 지능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실제로 지능에는 생물적인 유전과 환경의 영향이 공존한다. 지능 테스트가 측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이다. 따라서 개인의 지능 수준은 유전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요인A와 환경 자극의 결과를 나타내는 요인B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데 선천적인 지능만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테스트는 이미 습득된 지식과 습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능 자체는 습득 과정에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출발점에서는 유전적인 능력이 부족했지만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출발점에서는 유전적인 능력이 많았지만 불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보다 결국 더 높은 지능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요인A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요인B가 더 중요하다.

<보 기>

ㄱ. 같은 집에서 자란 쌍둥이 형제간의 지능 차이의 평균이 어릴 때 헤어져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쌍둥이 형제간의 지능 차이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ㄴ.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생후 6개월 이내에 생활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생활수준이 높은 가정으로 입양된 아이들을 10세부터 20세까지 10년 동안 관찰하였다. 이들의 지능 지수는 해가 갈수록 높아져서, 이들을 낳은 부모의 지능 수준보다 양부모의 지능 수준에 더 가까워졌다.

ㄷ. 미국의 어떤 지능 테스트에서 "교회와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개념을 지칭하는 적당한 단어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백인과 달리 대부분의 흑인 학생들은 정숙함이라는 답을 찾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흑인들의 문화와 종교예식에서는 그것이 관습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기 때문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37. 다음 글의 '가설A'와 '가설B'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기후 변화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인가?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먼저 쿠즈네츠 가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쿠즈네츠 교수는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해지지만 국민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내용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환경문제를 설명하는 가설A는 쿠즈네츠 가설에 등장하는 역U자 곡선을 경제성장과 환경문제의 관계에 적용하였다. 가설A는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간의 관계에도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의 관계에서 보이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본다.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달성한 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 중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앞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환경정책 집행을 위한 기술이나 인력 및 예산도 풍부해진다. 또한 소득증가와 높은 교육수준이 지역사회로 하여금 환경 기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만든다.

한편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무나싱헤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한 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이 거쳐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가설B를 제시하였다. 즉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가설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저탄소 성장 기술 및 지식을 이용하여 환경 안정선 이하의 경로를 따라가는 터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①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점을 계기로 환경오염이 개선된다면 가설A는 약화된다.

② 경제성장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 중에 온실가스 증가율이 둔화되지 않는 국가가 있다면 가설A는 강화된다.

③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의 국가들 중에 환경오염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국가가 있다면 가설A는 강화된다.

④ 지리적으로 인접한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선진국이 그 개발도상국에 발전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여 환경오염이 개선되었다면 가설B는 강화된다.

⑤ 선진국이 자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려는 경향이 크다면 가설B는 강화된다.

38.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9번 공통지문 문제)

<보 기>

ㄱ.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해 0.8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고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0.4의 신념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확률 규칙에 어긋난 신념도를 가진 사람이다.

ㄴ. 확률 규칙에 어긋나는 신념도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0.4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600원을 받고 비가 오면 400원을 잃는 내기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ㄷ. 확률 규칙에 어긋나는 신념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해 0.8의 신념도를 가질 경우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0.2의 신념도를 가질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